

지식재산권 실적의 지역별 변화

Regional Vari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Local Governments

김재희, 김용식*

전북대학교, 배재대학교*

Kim Jaehee, Kim Yongsik*

Chonbuk National Univ., Paechai Univ.*

요약

앞으로의 정보화시대에는 생산능력 자체 보다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가 확보하는 지적재산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서론

지식재산권이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예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한다[1].

이 중 특허는 고안으로 이루어진 발명의 전용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 보유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널리 활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적, 기업 차원에서 특허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업과 연구기관을 통한 기술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뚜렷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술 개발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특허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광역 자치단체의 등록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이후 구성은 2장에서 지자체 지식재산권 등록 실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제3장에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자체 지식재산권 등록 실적 분석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유관 기관을 통해 신기술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표 1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특허 등록건수, 그리고 표 2는 10년 전과의 비교를 위해 2005-2006년, 2015-2016년의 기간을 비

교한 것이다. 이들 표를 보면, 전체 등록건수 중 각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경기도가 30-40%, 서울이 30% 내외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은 등록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모두 합해도 30-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적이 급속히 상승하여 2016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82%정도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수도권에 실적이 편중된 것은 이 지역에 하이테크 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10여 년간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하며, 이는 표 1의 하단과 표 2에 잘 나타나 있다. 연평균 상승률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대신 강원, 경남, 세종, 울산, 전북, 제주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원은 0.5%에서 1.5%로, 경남은 2.0%에서 4.0%로, 울산은 0.5%에서 1.2%로, 전북은 0.8%에서 1.8%로, 제주는 0.1%에서 0.4%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경기도는 40.6%에서 30.01%로, 서울은 34.1%에서 29.3%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비율의 감소폭이 큰 편인데, 이 지역에 많이 분포한 하이테크 기반 제조업체나 기관들이 수도권 외부로 이전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원, 경남, 울산, 전북의 비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종의 경우 현재 그 비중은 작지만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최근 이들 지역에 정부 기관 및 기업들이 다수 이전한 영향으로 보이며, 그에 맞춰 지자체가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을 늘린 영향으로 추정된다. 실제 많은 지방의 지자체들은 테크노파크와 다양한 형태의 기술원들을 비롯한 여러 지원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특허 등록건수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05	238	22,284	1,092	2,504	926	943	2,848	994	16,756	-	237	1,311	360	443	94	1,207	992
2006	415	35,524	1,801	3,056	1,343	1,327	4,913	1,638	31,717	-	467	2,093	551	709	104	1,955	1,481
2007	710	31,950	1,884	3,960	1,351	1,645	5,099	1,834	33,840	-	600	2,691	723	840	147	2,533	1,647
2008	602	20,156	1,568	3,377	1,020	1,283	3,866	1,425	20,152	-	498	2,286	546	692	137	2,159	1,128
2009	445	12,958	1,213	2,484	737	1,092	3,427	1,080	13,150	-	375	1,642	457	511	120	1,462	826
2010	545	15,671	1,492	2,746	921	1,295	3,874	1,411	16,302	-	498	2,253	610	615	136	1,615	1,131
2011	934	21,980	2,362	3,557	1,247	1,959	5,223	2,104	22,583	-	735	2,943	828	1,041	237	2,600	1,644
2012	1,162	25,150	2,963	4,216	1,427	2,247	6,569	2,523	24,761	131	1,013	4,135	1,125	1,405	279	2,800	1,774
2013	1,315	29,369	3,076	5,946	1,589	2,641	7,809	2,850	26,558	175	1,149	4,478	1,177	1,615	323	3,379	1,718
2014	1,381	28,315	3,465	5,723	1,626	2,701	7,550	2,790	28,275	179	1,284	4,351	1,445	1,777	413	3,598	1,854
2015	1,090	22,305	2,840	4,491	1,298	2,043	5,238	2,281	22,750	198	911	3,214	1,079	1,338	290	2,996	1,431
2016	1,291	25,087	3,538	4,594	1,410	2,365	5,492	2,527	23,381	249	1,016	3,307	1,201	1,468	305	3,008	1,670
합계	10,128	290,749	27,294	46,654	14,895	21,541	61,908	23,457	280,225	932	8,783	34,704	10,102	12,454	2,585	29,312	17,296
연평균 상승률	40%	1%	20%	8%	5%	14%	8%	14%	4%	23%	30%	14%	21%	21%	20%	14%	6%

표 2. 특허 등록건수의 변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005~2006	0.5%	40.6%	2.0%	3.9%	1.6%	1.6%	5.5%	1.8%	34.1%	0.5%	2.4%	0.6%	0.8%	0.1%	2.2%	1.7%
2015~2016	1.5%	30.1%	4.0%	5.8%	1.7%	2.8%	6.8%	3.0%	29.3%	1.2%	4.1%	1.4%	1.8%	0.4%	3.8%	2.0%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특허 등록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10여 년간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기술 개발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서울과 경기의 성장이 둔화하고, 대신 강원, 경남, 세종, 울산, 전북, 제주 등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지방 자치단체는 과거의 낮은 실적이 주는 기저효과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 차원의 각종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 [1] 강희중 (2016),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과 성과 (국내특허출원 부문)", 제26권, 제4호, pp. 68-73.